
전국 종합병원 중 치과 내에서의 파노라마방사선촬영 실태연구

삼성서울병원 치과방사선과, 한서대학교 방사선학과*

강정기, 김명수*

목 적 : 전국 종합병원 중 치과 내에서의 파노라마방사선촬영 실태를 파악하여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.

연구대상 및 방법 :

- 1) 대상 : 대한병원협회 6월 기준으로 치과가 개설 중인 전국 286개 종합병원
- 2) 방법 : 2002년 6월 1일~7월 15일까지 전화면접 조사하여 설문에 답한 263개 병원 중 파노라마 촬영을 하고 있는 병원을 기준으로 함
- 3) 지역구분 : ① 서울 지역 ② 경기.인천.강원 지역 ③ 충남.북.대전 지역 ④ 전남.북.광주.제주 지역 ⑤ 경북.대구 지역 ⑥ 경남.부산.울산 지역

결 과 :

- 1) 치과위생사가 촬영하는 비율은 263개 병원 중 79개 병원(30.03%)이었고, 이중 경남.부산.울산 지역이 41개 유효조사 병원 중 20개 병원(48.7%)으로 가장 높았다. 반대로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.대구 지역으로 28개 유효조사 병원 중 4개 병원(14%)으로 조사되었다.
- 2) 방사선사가 촬영하는 비율은 263개 병원 중 치과방사선과에서 17개 병원(6.46%), 진단방사선과에서 86개 병원(32.69%)로 총 103개 병원(39.15%) 나왔다. 이 중 서울 지역이 31개병원(11.78%)으로 가장 높았고, 충남.북.대전 지역이 7개 병원(2.66%)으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.
- 3) 치과위생사가 일일 촬영하는 검사 건수를 보면 총 79개 병원 중, 5건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은 42개 병원(53.16%)이었고, 10건 이하가 19개 병원(24.05%), 20건 이하가 8개 병원(10.12%), 15건 이하가 6개 병원(7.59%), 30건 이하가 4개 병원(5.06%) 순으로 조사되었다.

결 론 : 이번 연구는 치과가 개설 중인 전국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점에 유의하여 살펴보아야 한다. 2000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치과 병,의원에 수는 전국에 10,471개로 나와 있으며, 이번 조사에서 나왔듯이 치과가 개설 중인 전국 종합병원의 수는 286개로 약 2.7%에 해당된다 이중 설문에 답한 263개 병원 가운데 치과위생사가 촬영하는 비율은 79개 병원으로 약 30.03% 정도 이었고, 치과방사선과 및 진단방사선과에서 방사선사

가 촬영하는 비율은 치과방사선과에서 6.46%, 진단방사선과에서 32.69%로 총 39.15% 나왔다. 법적으로 구강내 촬영 이외의 치과촬영을 치과위생사가 촬영했을 경우 처벌을 받지만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단 한건도 없을 뿐더러 그렇다고 모두 처벌을 한다면 사회적 파장 또한 대단할 것이며, 이해 당사자들에 반발도 무시 못 할 것이다. 요컨대 이제는 이 같은 문제를 공론화하여 방사선사를 포함한 해당 실무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토론회를 갖고 제한적인 허용 범위 및 규제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. 일부 대학병원에서 하루 20~30건의 파노라마 촬영을 치과위생사가 담당하여 촬영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.